

코로나도 못 막은 청소년들의 끼·열정

‘코로나19’ 속 갑갑함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함도 청소년들이 발산하는 끼와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광주·전남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축제인 ‘제9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가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도심 공원에서 진행된 행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나고 즐겁게 진행됐다.

이번 청소년축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용음악과 댄스 등 각 부문별로 기량을 겨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 팀을 초청해 공연을 선보이는 축전(공연) 형식으로 펼쳐졌다.

특히 공연팀과 소수의 관객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지 대면 공연과 함께 금남로공원에서의 공연 실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비대면(랜선) 공연도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광주 운남중 그룹사운드 ‘운남 파도스’의 무대로 문을 연 축전은 매년 작품 발표회를 진행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참여하며 실력을 자랑해 온 ▲KJN 파워연스팀(송원여상 등 중·고 연합) ▲비기닝 크루(광주 동명고) ▲코드블랙(광주 금파고) 등 댄스팀이 잠재된 재능과 끼를 무한 발산하며 열린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즐겁고 활기찬 무대는 아름다운 노래 공연으로 이어졌다. 음원을 발매한 경력도 있는 남성 듀엣 ‘Unknown(언노운·광주 서강고)’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혼성그룹 ‘Colors Of Music Com(전주 제일고)’ 등 실용음악팀들이 아름다운 음색으로 무대를 달랐다.

2시간 여의 축전은 오키나와와 칼립바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공연팀

‘제9회 청소년축제’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열려 경연 방식 탈피, 청소년팀 초청 무대로 꾸며 공연 실황 유튜브 생중계 비대면 공연 진행

‘동동카라안(광주상무고)’의 연주와 가요 공연으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이날 청소년축제에서는 공연 행사와 함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행사 취지를 살려 행사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독려했으며, 공연 사전 프로그램으로 송원대와 광주대 등 지역 대학들의 입학 전형 설명회도 곁들여 졌다. 올해 9회를 맞은 광주·전남 청소년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초반 2번째 대회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렸고, 3회부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공원 등에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축제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교육부와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 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이 후원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제9회 청소년축제’가 열려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 실황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돼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오늘 전체 등교

광주 초·중·고 95%...전남 초교 19곳 제외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19일부터 학생들이 전체 등교해 그동안 코로나19로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했던 학사일정이 정상화하게 됐다. 단 학생 수가 900명 이상인 광주 15개교, 전남 17개교 등 초과밀 학교는 탄력적인 등교를 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9일부터 모든 학생이 등교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314개교 중 95%인 299개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체 학생 900명 이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 800명 이하 중학교는 준비 기간(12~16일)을 거쳐 학교장 판단 등에 따라 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는 초과밀 학교인 수완초를 제외한 154개 중 153개교에서

전체 등교가 이뤄진다. 중학교는 92개교 중 92%인 85개교에서, 고등학교는 68개교 중 89%인 61개교에서 전체 등교가 각각 실시된다.

지난 12일 이후 전체 학생 수 900명 이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등교수업을 늘릴 수 있도록 했던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19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전교생이 9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19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등교수업을 할 예정이다.

장회국 광주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력 격차 해소와 안정적 돌봄을 위해 현장 밀착적 극 행정을 펼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 행정으로 인한 책임은 교육감과 교육청이 감당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육공공성 강화

계림8구역 ‘센트럴키즈’ 개원

광주시 동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18일 동구에 따르면 계림8구역에 올해 지역 내 세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동구 센트럴키즈’가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동구센트럴키즈’ 어린이집은 지난 7월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구립어린이집 설치·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70명 정원모집을 완료했다.

동구는 지난날 10일 육아지원 전문기관인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개원에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동구푸른길(지난 3월), 동구리치마을(지난 9월), 동구센트럴키즈(지난 15일) 등에 이어 연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곳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호남대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 교육사업’ 선정

호남대학교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KF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사업’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KF 글로벌 e-스쿨(이하 e-스쿨)’ 사업은 국내외 대학 간 연계를 통해 한국 관련 강의를 해외 대학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해외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해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한국을 연구할 수 있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12개국 19개교에서 700여 명의 수강생으로 시작된 KF 글로벌 e-스쿨사업은 올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형, 반복 학습이 가능한 VOD형으로 나뉘어 대학을 선정했다.

한국어학과 운영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한국어학과 교수들이 참여한 호남대는 2021년 VOD 강의 참여 대학으로 선정돼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의 신남방 지역과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신북방 지역에 한국어 관련 VOD 강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호남대가 그동안 쌓아온 국제교류와 글로벌 교육기반, 한국어 교육 역량 등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특히 사업 선정을 통해 호남권 최고의 한국어 교육기관임을 입증한 호남대 한국어학과는 한국어 교육 분야의 우수한 교수진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어학과 및 일반대학교 석·박사 과정, 사회융합대학원 석사 과정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원 양성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

‘전남형 고교학점제 모델’ 구축 나서

전남교육청 워크숍

오는 2025년 시행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전남교육청이 ‘전남형 고교학점제 모델’ 구축에 나서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반고 교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가 전남형 고교학점제 모델학교다’는 주제로 최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결과나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올해 고교학점제 일반고 연구·선도학교 7곳을 추가 지정, 20개교로 늘린 데 이어 2021년에는 45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번 워크숍은 학점제 기반조성으로 다양한 개설과목 확대를 위한 연구·선도학교의 성과와 노력을 공유하고 성찰하며, 2021학년도 계획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점제형 공간혁신 실현 사례발표와 2021학년도 학점제형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원탁토론이 이뤄졌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방안으로 직업계고 교과를 일반고 학생들이 수강하는 온·오프라인 강좌 개설, 대학 및 지역연계 개설과목 확대,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도 제시됐다.

학생·교사에게 5·18이란?

도교육청, 19일부터 도내 학교 인식도 조사

전남교육청이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초·4·고3)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인식도 조사는 제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도교육청 추진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 분석을 통해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식도 조사는 크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과 ‘5·18민주화운동 수업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됐다. 또 도 교육청의 정책 발굴을 위해 남도 민주평화회와 전남의 5·18민주화운동, 국

가기념일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 역사 등 도교육청에서 발간하거나 제공한 교육자료의 학교 현장 활용도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인식도 조사를 통해 응답자 스스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공공체의 민주·인권인식을 점검하고, 주변에 확산되는 부가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내년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히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